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1호 2010. 6 219~242쪽

#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 -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 -

김혜선, 김은하*

본 연구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체험한 어머니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이 결혼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혼 후에 자녀양육을 지속하면서 경험하는 어머니 체험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부계중심의 한국사회에서 결혼제도 밖으로 밀려난 여성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머니의 본질적인 의미구조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해당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체험한 어머니경험의 의미구조는 ‘독립된 양육자로 살아가기’이며, 의미구조를 구성하는 6개의 구성요소는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됨’, ‘이혼사실을 확인함’, ‘자녀양육책임이 버겁게만 느껴짐’, ‘부정적인 주위의 시선을 느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됨’, ‘여성한부모의 삶을 수용함’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혼을 통해 발생하는 여성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 교육을 통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 그의 가족에 공적인 사회복지지원 측면에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 경험

##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과 생활양식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가족생활과 가족관계는 전통사회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에 따라 전형적인 가족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최규련, 2007), 그 중 하나가 한부모 가족이다. 한부모 가족은 부모의 이혼, 별거 혹은 미혼모, 독신 등의 이유로 주 양육자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조성연, 2003), 자녀의 보호를 모가 맡으면 여성 한부모 가족으로, 부가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 가족으로 불리게 된다(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 이러한 한부모 가족이 최근에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은 그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의 발생 원인이 주로 사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의한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최경석, 2003; 조영희, 2003; 장혜경 외, 2001).

* 교신저자

www.kci.go.kr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4년에 비해 2004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7.8%, 1995년 8.6%, 2000년 9.4%, 2005년 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한부모 가족이 그 중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박민형, 2006).

하지만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소득계층별 부위에서 최하위이며 빈곤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집단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송다영, 2006). 실제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경제적 지원자였던 남편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1/3에서 1/2 정도까지 감소되거나 상실되어 저소득층이 되는 경우가 많다(김미숙・박해경・박상헌・홍석균・조병은・원영희, 2000). 이에 따라 과중한 교육비 부담문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관한 문제 등을 경험하며(옥선화・성미애・이채림・이경희, 2002: 장혜경 외, 2001), 이전에 수행해 왔던 어머니 역할 외에 다른 한편의 부모 역할까지 수행하는데 따른 긴장과 역할과중을 경험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김오남・김경신, 1998). 역할 수행상의 혼란 외에 사회적 위축문제, 상실감이나 우울, 분노, 자존심의 저하 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있으며, 부모나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족관계의 약화와 친구, 직장동료, 이웃 또는 종교집단에 의한 지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이재림・옥선화, 2001). 이 밖에도 재혼문제, 한부모 가족복지정책 등의 법적・제도적 한계와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자녀의 심리적인 문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조성연, 2004).

이에 이혼한 여성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내용이나 지급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수혜대상 한부모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강기정・이무영・김영희, 2002 재인용). 게다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국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대책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강기정・이무영・김영희, 2002). 즉 증가 추세에 있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 형태를 형성하여 아동의 주 양육자가 된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의 삶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모성이데올로기 즉,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강제성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혼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가족에 의한 양육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을 여전히 여성의 주된 직업이며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는 지나친 모성이데올로기 속에서 한부모의 역할을 선택한 여성들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숙현, 2005).

이러한 이유로 이혼 후에 형성된 한부모 가족의 사회복지적 개입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모성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기능주의적 정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환경에 근거해서(이연정, 1994)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

www.kci.go.kr

으로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양육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한 경험이며, 관계의 경험이고, 여성이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이자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경험이며, 사회문화적 의미를 학습하는 하나의 장인 동시에 사람됨의 향상에 기여하는 하나의 교육이기에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당사자의 사회적 맥락과 정체성 정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노영주, 1998).

이러한 논점을 가진 연구는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성경험을 질적으로 연구한 노영주(2001)외에는 없다. 비록 김경애(1999)가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자가정의 형성과정, 모성역할 수행 등에 대해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혼한 여성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며, 일정 사례를 인터뷰한 후 질문지의 방향을 정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적 관점을 중요시 하는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의 주 양육자가 된 여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체험을 통해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개방적인 태도로 참여자의 체험에 대한 기술을 취함으로써 있는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 선험적인 현상으로 복귀하여 스스로 보여주는 대로,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구조를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험된 존재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인간 상황이나 실제 사건이 되는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식이다(Giorgi, 2003).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혼한 여성 한부모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의 연구를 다양화함으로써 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그들의 실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들의 가족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사회복지 개입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체험한 어머니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 Ⅱ. 문헌 고찰

### 1. 이혼한 여성 한부모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조성연, 2004)’으로, 여성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보호를 모(母)가 맡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장혜경 외, 2001).

최근 한부모 가족의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 기초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하나로 보고 (김승권・양옥경・조애정・김유경・박세경・김미희, 2004), 가족이 가지는 강점이나 스트레스 대처방법, 적응방법 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옥선화・최새은・권소영・강유진, 2004; 이경희, 2006).

www.kci.g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양부모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이상화시킴에 따라 그 규범에서 벗어난 한부모 가족을 병리적 가족으로 간주하여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다(김연옥・유채영・이인정・최해경, 2005). 특히 이혼 가족은 자녀를 키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 대인관계,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사별과는 달리 이혼의 경우는 한 개인의 의지나 성격 그리고 부모로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김혜련, 1993; 성정현, 1998; 박민형, 2006). 따라서 이혼은 결혼생활의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이고 이혼을 요구받은 배우자는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거나 이혼 후 달라진 생활양식들로 인해 적응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실제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영역 등에서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남성 한부모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혼 후 여성의 소득 수준은 6%에서 최대 70%까지 감소하고 있다(옥선화 외, 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취업을 하더라도 주로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이거나 서비스직 혹은 단순 노무직, 낮은 지위 등에 처하게 되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자립적인 생활은 매우 어렵다.(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1; 김연옥 외, 2005). 가령 정기적인 소득을 갖는 여성 한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는 전체의 33.3%에 불과하며(김승권 외, 2004),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인 비율이 73.6%이고, 50만원 이하가 41.2%에 달하고 있다(강영실, 2002; 박민형, 2006 재인용). 따라서 이들의 상당수는 정부지원금과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김승권 외, 2004),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 여성 한부모 가구는 7.1%에 불과한 실정(보건복지부, 2001)으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현재의 수혜대상은 극빈층 가족에 한정되며 지원액이나 지원내용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이들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 등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치욕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선영, 2000).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자녀양육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김연옥 외, 2005).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입소 우선권 제공 등의 아동보육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전적으로 맡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자녀돌보기 역할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아동보육은 이들에게 절박한 문제이다(이재인・김선미・김은정, 2006).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동 양육비도 소액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김은정・이재인, 2006). 더구나 배우자가 있을 때와는 달리 부모 역할을 혼자 떠맡게 된 여성 한부모는 가사와 경제활동으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

www.kci.go.kr

녀와의 심리적 갈등도 커지게 된다(정현숙・유계숙, 2001). 즉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죄의식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이거나 일관된 태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박민형, 2005). 또한 모자관계가 평등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됨에 따라 갈등이 표면화되기 쉬워 직접적인 갈등형태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으며, 가족체계의 붕괴에 따라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자녀들이 두려움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성장에 큰 위기를 겪게 된다(조성연, 2003). 하지만 현재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형태는 급식사업 등의 경제적 지원과 공부방 운영 등의 방과 후 보호 등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치중하고 있어서 다중의 위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을 돕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김승연・이영희, 2003). 이러한 위기 환경 때문에 이혼한 한부모 여성들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 한부모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를 부담해야 하는 역할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김승원 외, 2004). 특히 이혼한 여성 한부모는 사별한 여성 한부모보다 스트레스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연옥 외, 2005).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이 개인의 의지나 성격, 부모로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 한부모는 혼자 사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남성들로부터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등 직장이나 사회 환경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사별보다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더 크다(변환순 외, 2001). 이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유일한 정서적 지원체계 법안인 모 부자 복지법이 한부모 가족의 정서적인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사항(7, 8, 17조)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상담소의 전문 인력 배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입은 매우 미약하기만 하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도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대부분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유영주・오윤자, 1990). 특히 여러 이유들은 여성 한부모 가족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한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켜 사회통합의 통로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된다(송다영, 2003).

## 2. 어머니 경험

핵가족안의 가정주부는 전통사회의 주부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하락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분리됨에 따라 가사와 양육은 여성이, 사회와 경제활동은 남성이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여성들은 재정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조혜정, 1981). 이때부터 여성에게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위치가 가장 확실한 존재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박혜란, 1987).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란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어린 시

www.kci.go.kr

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욕구보다는 자녀의 욕구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모성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김인지・이숙현, 2005). 즉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돌봄의 역할은 어머니를 신비하게 만듦과 동시에 어머니 역할을 변화시켰다(Glenn, 1987; 이숙현, 2005 재인용).

이에 사회는 거의 모든 여성들을 어머니 역할에 고착시킴으로써 어머니 역할 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렵게 되었고, 힘들게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들은 가정 일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통념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이숙현, 2005). 하지만 경제활동이 높은 도시 빈민층과 영세 빈농 가족의 어머니들은 실제로 남편을 대신하여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식주 문제와 양육문제, 교육문제까지도 전담해야 했다(김미숙, 1990; 김미하, 1990; 조옥라, 1990; 김인지・이숙현, 2005 재인용). 또한 지나친 모성 이데올로기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늘 '부족하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하며,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 뒷받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머니들에게는 '남들처럼 해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였다(이재경, 2004). 더 나아가 어머니의 욕구를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 자체가 주는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역할 수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낳기도 했다(조혜정, 1988).

이는 헌신과 희생 뒤에 오는 여성의 자아상실(이연정, 1994)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곡된 여성정체성이 대물림되어 어머니나 아내 역할만을 주입 받아온 여성들은 자신을 주체로 한 정체의식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는 정체성을 찾아 새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어려운 점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이은하, 2004).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지금에도(권용은・김의철, 2004)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환상은 완벽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 자체를 드러낼 수 없다(김인지・이숙현, 2005).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지내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은폐시키고, 부모역할을 이상적인 것으로 미화시키고 있다(이연정, 1994)

하지만 여성들에게 있어 1990년대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여성이 결혼을 통해 어머니로서 충족감, 아이들과 살림에 대한 통제력, 결혼한 여성으로서의 안정된 지위를 얻으나 '이것만이 나의 삶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은하, 2004). 즉 점점 더 많은 어머니들이 독립적인 자아의식을 갖고 모성만이 아닌 경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자기 찾기'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신경아, 1999; 김인지・이숙현, 2005).

## III. 연구방법

www.kci.go.kr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혼으로 여성 한부모가 된 어머니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Giorgi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은 현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기술을 연구자의 학문적인 배경에 따라 학문적인 용어로의 변형을 통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밝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대표적 표집방법이다. Giorgi(1997)는 연구 참여자 선정에 대해 '그 현상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와 '그 경험을 충분히 기술가능한가'의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이 어머니 경험의 개념을 알고 있으며, 그 과정을 경험했고 스스로 어머니로서의 삶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명의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특징**

| | 나이 | 자녀성별(수) | 직업 | 이혼연수 | 학력 |
|---|---|---|---|---|---|
| 연구참여자 1 | 34 | 딸(1) | 사무직 | 5 | 대졸 |
| 연구참여자 2 | 42 | 아들(1), 딸(1) | 가사간병인 | 8 | 고졸 |
| 연구참여자 3 | 36 | 딸(3) | 아르바이트 | 7 | 고졸 |
| 연구참여자 4 | 37 | 아들(1) | 아르바이트 | 9 | 고졸 |
| 연구참여자 5 | 39 | 딸(2) | 사무직 | 8 | 대졸 |
| 연구참여자 6 | 46 | 아들(2) | 가사간병인 | 8 | 고졸 |

연구 참여자 중 2명은 지역사회를 통해서 만났고, 나머지 4명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장으로부터 연구목적과 연구기간에 대해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면담을 하게 되었으며,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 시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이를 녹음하였다. 또한 사후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녹음된 내용의 필사 시 대상자의 이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호로 표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참여자를 살펴보면 연령이 30대에서 40대에 이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명, 대학교 졸업이 2명이며, 대부분은 임시직을 가지고 있고,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1명은 세 자녀, 3명은 두 자녀, 나머지는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과 동거하며 생활한 결혼 기간은 1년 이상부터 9년에 이르고 있으며, 이혼한 지는 모두 10년 미만이다. 또한 이들 모두는 현재 이혼 후에 친

www.kci.go.kr

정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

##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참여자의 진술 중 공통적인 하위 구성요소가 발견되고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충분한 기술들이 완성되고 더 이상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시점까지(Giorgi, 2003)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은 1회에 4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자별로 진행된 면담 횟수는 최소 2회에서 최대 3회였다. 면담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이혼 후 한부모로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심층면담으로 들어갔다. 이후 2차 면담부터는 참여자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질문이나 신뢰성 확인을 위한 반복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발견된 범주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면담 후에는 연구 참여자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연구자의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을 면담일지에 기록해 두었고 인터뷰 장소와 일시는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상담실이나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 4. 자료의 분석

자료는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로 녹음한 후에 연구자가 녹취 내용을 들으면서 직접 컴퓨터로 필사하여 디스켓에 저장, 인쇄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 (Giorgi, 2003, 신경림・장연집・박인숙・김미영・정승은, 2004)가 제시한 4단계 절차(전체 인식하기, 의미단위 구분하기,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 구조로 통합하기)를 따라 분석하였다. Giorgi(2003)의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인식하기’로 연구할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인터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따라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 구분하기’로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참여자가 체험한 어머니 경험의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참여자의 진술 중 의미의 변경이 있는 곳을 나누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로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에서 참여자의 기술로 돌아가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 경험이 보여주는 어떤 것을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즉 앞의 단계에서 구분한 의미단위들을 서로 대조하고 관련성을 찾아내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구조로 통합하기’로 자유로운 창조적 사고를 통해 서로 얽혀있는 의미와

www.kci.go.kr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재편성하고 그것들이 원래 사건의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도록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 경험에 대한 의미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위해 Giorgi(1997)가 제시한 4가지 기준(체계적(systematic), 접근 가능한가(accessible), 적용 가능한가(applicable), 비판적(critical) 타당성을 갖는가)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즉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도구로서 자신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수업과 워크샵 등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학술적 문헌과 비 학술적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Giorgi(1997)의 분석 단계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과 절차를 따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4단계의 절차를 철저히 따라 결과를 도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의 기술 중 공통적인 주제가 발견되어 주제를 설명하는 충분한 기술들을 추출할 수 있고 더 이상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시점까지 면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결과가 정밀하다고 판정받기 위해 Giorgi(2003)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본질(essence)에 대한 예외를 찾음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의미구조로 돌아가 본질적 의미의 예외를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Ⅳ. 연구결과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체험한 어머니 경험에 대한 참여자 진술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단위를 나누고 전체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의미단위들 중에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묶어 의미단위 요약을 도출하였다. 의미단위 요약을 다시 읽어가면서 공통적이라고 판단되는 하위 구성요소를 묶어 최종적으로 6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 1)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됨

참여자들의 남편은 자주 외도를 하거나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등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사건들을 일으켰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점차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며 이혼에 대한 결정에 유예기간을 두었다.

*느낌도 있었고 예상도 있었고, 근데 목격을 해도 남자들은 그렇대요. 아니라는 둥 그런 식으로 남을 탓하는 거 있잖아요. (중략) 이렇게 달래 봐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안되고. 사람이 성격이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애를 보기 싫다 애를 보면 보기 싫다 그러는 거야(참여자 5)*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져갔지만 남편이 없는 자녀양

www.kci.go.kr

육에 대해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혼에 대해 생각을 잘 안했어요.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어떤 사회생활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아무 것도 가진 능력도 없고 5년을 살림만 하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더 굴뚝같았지만(참여자 1)*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 포기로 더 이상 결혼생활이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정했으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온전히 참여자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특별한 준비도 없었고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조차 갖지 못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저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아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가 먼저 이혼해 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때 이혼도장을 찍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중략) 서류상 이혼이 뭐 나중에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알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중략) 너무 허망하데요. 막상 닥치고 나니까 속은 굉장히 후련해요. 어떻든 나중에 어떻든 그 때 상황은 풀렸다는 생각이(참여자 5)*

*그냥 터지고 나니까 뭐 막막하다고. 그냥 우선은 애들 아빠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나한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절대적으로 애들은 내가 키워야 된다고. 왜 애들 아빠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안되니까. 거기서 키우면 고아원으로 직행이에요. 애들에 대한 애착심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막막하게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참여자 2)*

### 2) 이혼사실을 확인함

참여자들은 이혼할 때는 홀가분했던 마음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과 후회를 하게 되었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수치심을 느끼며 살던 곳을 떠나 고향을 찾게 되었다.

*창피해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었다니까요. 창피해서. 친구들하고 어지간해서는 연락은 다 끊고 살아요. 그래 병원에서도 창피해서 얼른 숨어버리고(참여자 2)*

*말 꺼내기 조차 처음부터 우리는 모자인데요. 이 말 자체가 주눅이 들어요. 당당하지가 못하고(참여자 4)*

www.kci.go.kr

*나도 이제 외지에서 살다보니깐 고향 오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창피한 거는 정말 누구 말대로*

*한번만, 처음에 왔을 때 이게 그렇게 골이 아프다 했는데도 그게 조금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묻혀진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가니깐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은 아는 인맥들이 많으니깐 (참여자 3)*

고향에서 살면서 이혼에 대한 수치심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였다. 특히 남편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원망과 분노를 자제하고 이혼한 현실을 회피하려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기존의 모습과 달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부정적이었고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를 그렇게 내 자신을 취급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주위에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혼하고 그쪽하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니까 이혼을 한 사실을 알고 지내고 일상적인 이야기, 진짜 편안하게 받아(참여자 1)*

### 3) 자녀양육책임이 버겁게만 느껴짐

참여자들은 이혼 후에 자녀 양육을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스러움을 떨쳐 버릴 수는 없었지만 남편과는 달리 자녀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로써 책임을 다하고자 어려움을 감수하려 하였다.

*긴 시간 속에 결정을 한 게 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버리자. 아이를 택하자. (중략) 아이를 처음부터 양육을 내가 다. 그래도 제 자식을 내가 포기 안하고 내가 데리고 사는 건데(참여자 4)*

*제 자식이니까 좋든 싫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결코 책임질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저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참여자 1)*

참여자들은 이혼 당시에 위자료를 받거나 부양을 위한 보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돈 벌이를 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직장을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힘들었다. 하는 수 없이 적은 수입의 임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당장 본인 입에서 그만 두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 그만 두게끔 말을 자꾸 유도를 하더라구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산다고 매달리는 입장이거든요.(중략) 애들이 너무 어리다보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휴 (중략) 일주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하고 반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데 내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여차*

www.kci.go.kr

*하면 짤리는, 진짜 직장도 짤려야 되고 애들도 고만하고, 진짜 손목이 잘못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만 둘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요. 어떻게 할지 캄캄해요. 누가 좀 애기를 해줘가지고 내 좀 애들이 클 때까지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만 해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로(참여자 2)*

참여자들이 일거리는 찾았지만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없었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자 창피함과 주눅이 들었고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게 되었다.

*내 살기 바쁘니까 잘 안돼요. 그게. 나도 나름대로 생활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애들을 소홀이 할 때 고 있잖아요. 나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참여자 5)*

*일을 할 때도 제가 학습지를 했는데 혹시나 애들 가르치다가 그것도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인정은 못 받지만 만약 이혼을 했다는 게 걸림돌이 될까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참여자 1)*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일시적인 원조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양육비를 책임지고, 심리적으로도 더 이상 상처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들한테 없다 소릴 해도 어차피 안도와주니깐 그 소리도 안하고 하니깐 그 소리도 안하고 그러니깐 좀 남한테 기죽는 건 안하는 것 같아(참여자 3)*

*애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지 인제는 뭐 얼굴 철판 깔고 다니죠. 이제는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내 같은 경우도 친정이니깐 그니깐 친정집에서 다 갖다 먹는 거야 (중략)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참 못할 짓도 많이 했는데 애를 키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죄송하고 그래요(참여자 1)*

*여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아침부터 밤까지 해도 120만원 받거든요. 노는 날도 한달에 두 번 쉬고, 그니깐 집에 생활은 생활대로 안되고 돈은 돈대로, 그 돈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거든 그럼 차라리 이렇게 보조금 50만원 받고 내가 차라리 저녁 알바를 하거든 식당가서 그 돈이 더 났거든. 애들은 애들대로 보고...(참여자 5)*

*엄마가 창피한 게 어디 있나? 그냥 만들자, 만들자. 저는 창피해서 못 갔잖아. (중략) 그래 우리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만들었어. 애가 어리다 보니 모자가정으로 해서 사는 게 낫다(참여자 3)*

*나는 복지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사실 서로가 몰랐는데 나보고 저소득 신청을 해가지고 옮기라고(참여자 2)*

www.kci.go.kr

*임대 아파트로 오면서 그나마 애기 도시락도 받아먹을 수 있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고 그럭저럭 도움을 많이 받은 편이에요. 선생님들도 간식을 많이 더 줘요, 복지관에서. 그런 관심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오면서 많이,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도움을 많이 받아서(참여자 4)*

### 4) 부정적인 주위의 시선을 느낌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고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자녀들을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하고 가슴이 뭉게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애들이 병신, 바보, 이런 거 엄청 여러 가지 욕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놀다가 그런 소리 듣고 올라와요. 와 갖고 엄마한테 애길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벌써 다 도망갔어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또 상처를 받는 거에요. 찢어져요, 마음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중략) 화나니까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 뭐랄까, 뭉게지는... 내 마음이 뭉게지는 것같아요. (중략) 내가 어떤 때는 막 잡고 때리고 오라고 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참여자 4)*

*급식비 면제가 딱 들어가니까 좀 애들한테 조금. 그니까 애가 작아져. 애가 학교에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중략) 애들이 우리보고 "거지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거지라고 딱 듣는. 그거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아니래 엄마 우리 그거 받으면 거지래. 그래 가지고 돈 내달라는 거야 (중략) 창피한데. 복지관에서 공부하는 거. 복지관에 가면 좀 그런 애들이 가는 거래요. 일반인이 아니거든. 저소득층만 간다는 (중략)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엄마 나 집에서 할께요. 혼자 한데... 친구 한 명이 없어. 하루 종일 혼자 앉아 가지고 책보고 공부하고 (참여자 3)*

참여자들은 과도하게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문제행동이 실제로 나타나면 당황할 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점차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생겼고 아버지가 있었으면 자녀를 건사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공부는 뒷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아이 마음이, 우리 아들 마음이 열려야지만 자기가 고쳐 나간다는 거 깨달은 거죠. (중략) 아버지 외에는 찾아줄 게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애가 좀 나아져서 말도 좀 잘하고 자기 의사표시를 똑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참여자 4)*

*뭐가 잘 못돼도 애들을 이렇게 가장이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가장 중요한 아빠가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서 엄마 혼자서 애들 먹여 키운다는*

www.kci.go.kr

*게. 그래도 애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가끔 그런 걸 못해 줄 때가 제일 속상하고(참여자 2)*

또 한편으로 아버지가 있어 자녀양육의 책임을 나누어졌더라면 자녀가 문제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로서 자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는 생각에 서글퍼졌다.

*뭐가 잘못돼도 애들은 이렇게 가장이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가장 중요한 아빠가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서 엄마 혼자서 애들 먹여 키운다는 게. 그래도 애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가끔 그런 걸 못해 줄 때가 제일 속상하고(참여자 2)*

*그러면 남자니까 아빠가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가정 갖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남자는 남자들이 다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점이 있고, 아빠가 감당해야 될 점이 또 있어요. 엄마는 야단쳐도 여자다, 애가 그래요. 엄마는 여자다. 그런 말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빠가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엄마가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4).*

### 5)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됨

그러나 자식을 반듯이 키워야 한다는 강박감에 자녀의 양육방식이 엄격해지고 통제를 많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느 어머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는 자신을 볼 때에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으나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면서 자녀교육에 대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엄마 마음을 안다면 이해를 해준다면, 알면서도 행동을 못한다는 거죠. 애가 알면서도. 개 나름대로 답답한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가 답답함을 풀어야 하는데 안 따라 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따라주면 되는데, 옆길로 새고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혼내줘 보기도 하고 했는데(참여자 4)*

*자기 애들 문제, 뭐 학원 다닌다 뭐 어디 보낸다 뭐 또 아빠의 문제, 모든 문제요. 다 걸려요. 그런 점들이 우리 애는 그렇게 못 해주는데, 우리 애는 지금 이러고 사는데 그런 자존심들, 많이 사람을 괴롭히죠. 그러다보면 내가 빨리빨리 풀어야 아이한테 덜 스트레스가 가는데 내가 만일 그걸 들을 때 빨리 하지 못하면 그게 그대로 아이한테 가더라구요(참여자 5)*

www.kci.go.kr

아버지를 찾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을 선택했던 자신의 희생을 자녀들이 이해

해주지 않은 것 같고, 품안의 자식처럼 장성한 후에는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 억울함이 밀려왔다.

*아빠를 용서해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럼 저는 도는 거에요. 너 그렇게 얘기 할 거면 너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 엄마는 네가 아무리 아빠가 좋다고 같이 살자고 해도 엄마는 같이 살 생각이 없고 너 가고 싶으면 너 보내겠다. 엄마는 너 때문에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다. 아주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안해요(참여자 1)*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엄마 혼자 키워도 애들 아빠 성을 따라 가야 되니까 내 혼자 키워서 저것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빠 찾아가겠다고 하면 난 할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애(참여자 2)*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친정엄마, 주변의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면 결혼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전 남편이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이 싫어지고 전 남편에 대한 막연한 원망과 미운 감정이 불쑥불쑥 솟구쳤다.

*막 여기서 벗어났으면 이 순간만큼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막 머리가 아플 때.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참여자 2)*

*난 결혼하기 전엔 눈물이 없었어요. 생활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아직도 흘릴 눈물이 있나 가끔 인제 애들이 일찍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속상하면 엄마랑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속상하지 속상하면 또 뭐 엄마한테 별 안 털어 놓을 얘기가 없으니까 하다보면 또 눈물 뚝뚝 흘리면 아직도 그렇고 흘릴 눈물이 그렇게 남았나 안 마르고 이러더라고(참여자 1)*

*지금은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키우는데, 내가 왜 힘들게 키워서 지네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고 애들 맘대로 만나고 이러면 나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될 것같더라구요. 내가 겉으로는 웃어도 얼마나 내가 마음은 그러는데, 진짜 애들 둘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일인 몇 역을 해야 해요.(중략) 내가 그 역할을 다 하는데 아빠라는 이름으로 애들을(참여자 2)*

*나를 너무 믿었겠지. 뭐.. 애들은 안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대책도 없는 건데..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다...힘들고 이럴 땐 욕을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참여자 6)*

### 6) 여성 한부모임을 수용함

www.kci.go.kr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버릴 수 없었던 결혼에 대한 미련, 남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그리워

졌고 통제할 수 없는 자녀를 친아버지의 대체자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행동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재혼을 생각하고 남자를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고 만나 의지할 남자친구를 찾기는 어려웠고 결혼 전과 같이 남자와의 교제가 쉽게 성사되지 않았고 설사 만남이 지속되더라도 자녀양육 책임과 재혼이 병행될 수 없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 도피처럼 결정하려했던 재혼은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살다가 보니 소문도 무섭고 애 키우는 것도 무섭고 이거는 직장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요새는 시집하고 싶다니까요(참여자 5)*

*이제는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 데리고 밖으로 저거 가잖아요. 야외로 많이 가잖아요. 남편, 아빠 자리가 있었으면...근데.. 솔직히 애 딸린 여자에 젊지도 않죠. 아들 둘에 돈도 없지. 집도 없지. 뭐 능력 없지. (중략) 남자란 인간들이 없더라구요(참여자 6)*

*살다보면 애들 키우면서 허전한거 애들 때문에 채워지는 부분하고... 혼자 채우는 부분이 또 틀리는 거야. 근데 참 저게 많이 커서 말 상대가 돼서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더라고, 솔직한 말로 누가 옆에서 와도 차를 편하게 마시고 밥 먹고... 뭐 그 정도 선이 딱 좋아.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열심히 잘할 자신 있고 그 사람한테 잘하고 ~ 근데 그게 딱 넘어 서니깐 이게 오버가 되니깐 내가 딱 선이 그어지는 거야, 그러니깐 남자들이 힘들어해, 자기는 선을 넘으면 책임을 지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만 데리고 갈라하고 그러니깐 나는 그건 싫다 이거지, 나는 옵션으로 셋 다 데려가라 하거든, 그게 싫음 나 만나지 말자 그래, 그러니깐 나 만나는 사람은 눈이 확 뒤집히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어중간히 한쪽 만 뒤집히면...(참여자3)*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지만 반면에 어느덧 자란 자녀들이 곁에 있어 대화가 통하는 것을 확인하고 뿌듯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졌다.

*에휴, 참 저게 많이 커서 말 상대가 돼서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더라고, 좀 그렇더라고, 사람이(참여자 3)*

*그게 고비 고비 한고비, 자기가 마음을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많이 좌우가 되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되요. 어떤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힘들죠. 자기 마음 자체를 잡지 못하면 어느 누구 마음도 못 잡아줘요. 솔직히 내가 쓰러지는데 누가 누굴 잡아줘요?(참여자 4)*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접어두는 것으로 자신들 위로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녀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듯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녀에게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줄 수는 없어도 서로 만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묵인하는 것으로 미안함 마음을 대신하기로 하였다.

www.kci.go.kr

*굳이 어릴 때는 있잖아요, 나쁘게 이야기해 줄 필요도 없고, 내 말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 좀 더 크니깐, 자연스럽게 말을 하니 애들이 알아들어.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좀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아무리 내가 좋게 얘기해도 옛날에 아빠가 잘못을 했구나 (참여자 3)*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제 적은 수입에 대해 규모 있고 융통성 있게 쓰면서 임시로 일거리를 찾아 생활하는 법을 터득하고 적응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대인관계에서도 회피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자녀와 함께하는 여성 한부모의 생활을 수용하고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고정 수입이 50만원이 딱 되니깐 적지 않거든 내가 살아보니까 거기 우선 고정으로 나가는 거는 그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버는 것 가지고 (중략) 만일 내가 일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보조가 회복이 안되고 생계가 딱 막히는 거야. 사람이 악아져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다보니 약아지고. 처음에는 보조 받는 거 자체가 창피했는데 이제는 뭐 괜찮더라구요. 내가 억지로 만든 조건이 아니니까 당당히 받아 드릴 건 받아들이고 사람이 당당히 해야 될 것같아. 애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고 내가 사는 게 편해요(참여자 3)*

*10년 후에는 나를 어디에서 받아줄 수 있는가 싶은 게, 또 올해부터는 요양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 놨거든요. 나도 어느 정도 애들 중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야지. 이렇게 마냥 살 순 없잖아요(참여자 2)*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체험한 어머니 경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이혼한 여성 한부모 6명을 대상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로 살아가는 현상의 실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의 가족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사회복지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 경험은 ‘독립된 양육자로 살아가기’였고, 그에 대한 구성요소는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됨’, ‘이혼사실을 확인함’, ‘자녀양육책임이 버겁게만 느껴짐’, ‘부정적인 주위의 시선을 느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됨’, ‘여성한부모임을 수용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어머니 경험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달라진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정체감을 확보하려는 과정이었다. 노영주

www.kci.go.kr

(1998)의 연구에서 어머니 경험은 어머니로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과 어머니 정체성에 부여하는 개인적인 의미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혼이 어머니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이혼하지 않은 경우나 사별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어머니'라는 상징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한국사회에서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녀양육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동일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결혼제도 안에 있는 여성들이나 자녀들이 현존하는 부모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약한 사별 여성들과는 다른 어머니 경험을 보였다. 이는 이혼한 한부모 여성이 갖는 사회적 환경이 그들과 다르게 시작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먼저 그들은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혼결정을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했다. 이는 이혼한 여자로 낙인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이혼 가정이란 사회적 잣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두려움은 단지 경제적인 책임에 대한 것만은 아니며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양부모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이상화시키는 경향(김연옥・유채영・이인정・최혜경, 2005)과 남편과 사별한 여성보다는 이혼 여성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 때문이었다(박민형, 2005).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자녀양육 책임을 선택했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많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 실제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의 존재가 단기적으로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경험과 재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득능력(earnings capacity)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동은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reman and Neumara, 1992; Nakamura and Nakamura, 1994; 이용우, 2006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 그리고 모성에 대한 일방적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여성 한부모됨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이 사회의 현실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남녀 성별 분업과 교육을 통해 입신 등의 유교적 전통 요소들이 결합되어(서수경, 2002)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강하게 요구되고, 양육과 돌봄이 여성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Arendell, 2001; 김인지・이숙현, 2005 재인용). 이에 사회와 정부는 여성에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모성성을 '어머니'라는 의미로 부여하고(박혜란, 1987), 여성이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강조함으로써(이영자, 1993) 가부장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사회복지의 많은 측면들을 여성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책임이 버겁게만 느껴짐'을 경험하면서 남성위주의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모성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다른 여성들처럼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양육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가부장적 복지국가의 중심행위자인 남성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빈곤의 위험, 사회 보장 및 보호에서 제외될 취약한 사회적 지위, 아버지 역할의 결여에 따른 자녀양육의 실패, 파트너 부재에 의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미취업 상태의 지속, 교육 및 직업경력의 단절 등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Backer, Bispinck, Hofemann and Naegele, 2000;

www.kci.go.kr

박명선 2006 재인용). 게다가 연구 참여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의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사회적 편견에 주눅이 들고 수치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혼한 어머니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이혼을 결정하고 난 후에 한부모로서 주눅이 든 삶이 보였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성신화와 연계된 수퍼우먼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Jung, 1997), 자녀 교육에 대한 과잉의 집착을 보여 자녀의 교육에 과도한 고민을 시작하고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통제적이 되었다. 노영주(1998)의 연구에서는 이혼 전부터 지속되어온 자녀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아버지 부재에 대한 의미부여는 없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 역할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즉, 자녀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전 남편과 자녀의 만남을 허락하거나 묵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미래에 자녀가 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졌다. 또한 남편이 포기한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던 참여자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없이도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양육방향에 대해서 흔들림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점차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미안함마저 들게 되었다.

자녀들에게는 이혼 후에도 부부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비춰짐에 따라 자녀들이 어느 부모에게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에 놓이게 되는 양상(김유숙, 2002)이 참여자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났다. 자녀들의 이러한 갈등들은 이혼 초기부터 아버지 부재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 스스로 미안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를 구하기 위한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종결짓고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함이었고 다시 부인의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초혼과는 달리 재혼에서는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자녀의 존재를 재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 후에 직면하는 녹록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환경을 자신만의 생존방식으로 수용하고 적응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최후의 보루로 남겨져 있는 자녀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모성이데올로기를 십분 활용하였다. 동시에 현실적이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제도보다는 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가능한 받아 안정된 일상생활을 만들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시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취업 소득액이 수급자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생계비에 포함하지 않는 독일의 경우(박명선, 2006)

www.kci.go.kr

와는 달리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일정량 이상의 저축을 할 경우 수급권자에서 박탈당하는 현실 그리고 주변 자원이 더욱 열악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모성이데올로기'가 현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전략이었을 것이다. 노영주(2001)의 연구에서도 이혼한 한부모 여성들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인정이 주어지고, 그들의 삶을 회고하고 재구성하는데 강력하게 작용하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인의 정체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근거로 '모성 정체성'을 선택했고 모성 정체성 안에 자기가 주인인 삶의 가능성을 새겨 넣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가 주축이 되는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여성 한부모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참여자들은 이혼에 의해 제도화된 모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홀가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직면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다시 제도화된 모성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참여자들의 제도화된 모성으로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서글픔을 느끼게 되지만 성장한 자녀를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체험된 모성을 깨닫게 된다. Adrienne Rich(2002)는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소유할 권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에 훨씬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실제 체험된 모성을 선택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적응을 하고 주도적인 삶을 위한 설계가 가능해졌고 힘들고 버겁기만 하던 현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들의 선택은 여성으로서 나만의 인생과 어머니 역할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였으며 스스로를 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성 한부모의 생존방식을 수용하였다.

지금까지 이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이혼 후 자녀의 존재는 이들을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갈 힘을 주는 것이며 모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왔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혼으로 인한 편견, 경제적인 어려움, 의사소통의 문제속에서도 재혼보다는 여성 한부모의 삶을 수용하고 있다. 즉 모성정체성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생활방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성 정체성이 이혼한 여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생각되었으나 그 의미와 한계를 통감해왔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여성에게 강요되어 왔던 모성정체성을 여성이 능동적으로 수용해 이혼여성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립함을 밝힘으로써 감을 밝힘으로써 이혼 후의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여성 한부모와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로 양적 연구와 같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혼한 여성 한부모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라는 낡은 처방이 아닌 여

www.kci.go.kr

성의 삶의 변화라는 측면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이라는 결과로 결혼이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났지만 어머니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여성 한부모들이 모성의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했던 근대적 관점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모성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재의 공적인 사회복지제도 안에서만 자신과 자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사회와 미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상태나 저축 정도와는 상관없이 아동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 한부모만 생계비 지원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도 이 법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혼직후에 이혼을 밝히려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급여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홍보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 한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혼으로 인한 가정환경의 혼란시기에 안정감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수급 대상자 등이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족 안에서 모성을 재해석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에게 있어 가족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간의 밀접한 정서적 관계를 통해 폭넓은 인생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실현의 장소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 관련하여 어머니에 대한 신비감을 형성하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전통사회와 현대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심한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머니인 여성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에서 수용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렇듯 사회복지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책이나 지역주민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여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이혼한 여성 한부모를 가족의 가장이나 아동의 주양육자로 강조하는 부모교육, 자활, 가족치료 등의 프로그램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이 현재까지 여성 한부모 가족의 문제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사회 환경 안에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혼한 여성과 그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삶을 어머니로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

www.kci.go.kr

으로서도 자신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은 이혼한 후에도 자녀와 생활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남편과 분리되지 못한 관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전 남편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분노, 억울함 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삶을 벗어나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의존에 빠져 자녀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 하지 않도록 개입해야 하며, 한편에서는 자녀들이 이혼한 후에도 부모간의 갈등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어머니를 온전히 자신의 주 양육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와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원들은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 독립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강기정 · 이무영 · 김영희. 2002. 한부모 가족의 복지 지원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웹사이트 활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권용은 ·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유아교육. 13(1): 211-226.

김경애. 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15(2): 87-117.

김미숙 · 박해경 · 박상헌 · 홍석균 · 조병은 ·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 양옥경 · 조애정 · 김유경 · 박세경 · 김미희. 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연 · 이영희. 2003.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의 위기대응전략에 대한 문화 지향적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15(3): 595-612.

김연옥 · 유채영 · 이인정 · 최해경. 2005. 가족복지론. 서울: 나남.

김오남 · 김경신. 1998. 편모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07-124.

김은정 · 이재인. 2006.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 빈곤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8): 253-278.

김인지 · 이숙현. 2005.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 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25.


www.kci.go.kr

노영주. 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명선. 2006. 독일의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연구. 사회과학논총. 22: 85-109.
박민형. 2005. 한국 한부모 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란. 1987. 성으로 본 여성의 실상-198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수경. 2002. 근대모성담론을 통해 본 한국가족 정책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37-152.
송다영. 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95-419.
송다영. 2006. 한부모 가족과 여성사회관. 사회복지정책. 27: 171-200.
신경림・장연집・박인숙・김미영・정승은.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신경아. 1999. 희생의 화신에서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90년대 모성의 변화. 여성과 사회. 7: 159-180.
옥선화・성미애・이재림・이경희. 2002.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55-78.
옥선화・최새은・권소영・강유진. 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이숙현. 2005. 여성과 돌봄: 모성과 부영의 여성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133-149.
이연정. 1994. 모성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자. 1993. 이데올로기, 성평등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이용우. 2006.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아동의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2(2): 105-131.
이재경. 2004. 노동자 계급 여성의 어머니 노릇의 구성과 갈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82-117.
이재림・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4.
이재인・김선미・김은정. 2005.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05-2.
이은하. 2004.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자아 찾기-박완서론. 한국문예비평연구. 269-291.
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 여성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정현숙・유계숙. 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조성연. 2003.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방법. 한국생활과학지. 12(5): 579-593.
조성연. 2004. 여성 한부모 가족의 모-자녀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조영희. 2003. 한부모 가족 부・모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조혜정. 1981.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20: 81-111.

www.kci.go.kr

조혜정. 1988. 도시가정의 주부가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가정생활 사건. 생활과학논집. 1: 37-53.

최경석. 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최규련. 2007. 가족관계론. 서울: 공동체

한국여성개발원. 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통계청. 2006. http://www.nso.go.kr.

김인성 역, 2002.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신화에 대한 반성. Adrienne Rich. 2002. 서울: 평민사.

Giorgi.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y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1.

Giorgi. 2003.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2003년 동계 질적 연구방법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 질적 연구 센터.

Jung, M. 1997. Meanings of Life of Mothers with Schizophrenic Child: an Interpretive Approach. *Psychiatric Health*. 2(1): 68-77.

---

**金惠善**: 강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중독, 질적연구방법, 임상사회복지 등이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 "중년 후기 남녀 유배우자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생활을 중심으로"(2008)과 "미혼 양육모의 양육결정 체험"(2006), "첫 아버지 됨의 체험(2005)" 등이 있다 (welcom-kim@kangwon.ac.kr).

**金恩廈**: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노인요양관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여성, 질적 연구 방법, 건강증진 등이다. 최근의 주요 논문과 저서로 "여대생의 체중조절경험"(2009), "기혼 여자 대학원생의 다중 역할 수행 경험과정"(2008), "입원한 독거노인의 편안함"(2007)", "노인의 마음 다스리기 경험"(2006)" 등이 있다 (regina0915@hanmail.net).

투 고 일: 2010년 3월 3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8일

www.kci.go.kr